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

2018.2.1.(목) 09:30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祝 辭

2018. 2. 1.

금 융 위 원 회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오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국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감사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 분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그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 의의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평가

여러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채권단이나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산 관련 법제도 채 정비되지 않은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기촉법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었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려 만약 그때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생산과 건설이 중단된 제품·건물 등이 정상 인도되지 못하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튼튼한 완충장치(buffer) 역할을 해온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도 폄하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참여가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상거래를 유지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차례 제·개정과정에서
법률이 폐지되고 실효된 기간도 있었는데,
기촉법 부재시에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회생의 실패가 다수 발생한 사례만 보아도
이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장 자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관치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촉법은 그간 제·개정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촉법의 개정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법조계·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자치 권리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며,

오히려 이 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의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축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기업구조조정과 정책 조합

여러분! 그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특정 제도나 플레이어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복잡한 유기체를 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조합(Policy mix)과
핀셋 처방은 어느 상황에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
수주·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평한 손실분담이나 신속한 기업회생이냐의
관념적인 논쟁보다는
그간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와 제도,
플레이어들의 성숙도 등을 감안한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World Bank나 EU 등에서도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길

이제 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재도약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혁신 경제나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며
그 중심에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제적·사전적 구조조정 〉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 기업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기촉법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와 아울러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사전적으로
기업혁신 및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업의 경쟁력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구조조정 결과예측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보니,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장기 성장과 혁신을 위해
각자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기업경영인·노조·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함은 물론,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부처, 산업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협력자인
법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의 공감대도
높여가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은행의 역할 재정립 〉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시장의
“마켓 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스킴(scheme)을 제시·자문하고,

법원과의 사전계획 하에
P-Plan 방식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필요한 경우
적격 자본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지원 및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6. 맺음말

오늘 공청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은
“많은 꽃에서 채집하지 않으면 꿀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 없이는
기업구조혁신과 경제의 안정성 제고라는 꿀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 도출을 위해
오늘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